

인천에서 밤이 길어지는 자리는 대부분 노래방에서 마무리된다. 부평 문화의거리에서 2차를 고민하다가 지하의 코인 노래방으로 흘러가거나, 송도 달빛축제공원 근처에서 회식 후 예약해둔 룸형 가라오케로 이동하는 그림이 익숙하다. 그럴 때 큐시트 하나 있으면 분위기, 동선, 시간 모두가 매끈해진다. 이어폰으로 듣던 노래와 마이크로 부르는 노래는 전혀 다른 스포츠라서, 즉흥 선곡만으로는 흐름이 뚝 끊어지기 쉽다. 잘 구성된 큐시트는 같은 노래라도 모두에게 더 재밌게 만든다.

내가 인천 가라오케에서 마이크를 잡아온 시간은 10년이 넘는다. 부평의 싸이키 조명 아래서 서른 명을 상대로 떼창을 유도한 날도 있었고, 주안역 근처 작은 방에서 다섯 명이 90분간 쉬지 않고 돌러가며 불렀던 회식도 있었다. 성향이 다른 사람들, 기계의 차이, 방의 크기, 음향 상태까지 고려하면 매번 같은 방식으로는 통하지 않는다. 그래도 원칙과 구조를 세우면 실패 확률은 크게 줄어든다.

인천 가라오케의 환경과 변수를 이해하기

인천 가라오케는 동네마다 결이 다르다. 부평의 노래방은 회전이 빠르고 방음이 묵직해서 저음이 잘 먹힌다. 송도는 외국인 고객이 많아 영어 히트곡 반응이 좋고, 최신 K-pop 반주 업데이트 속도도 빠른 편이다. 주안과 동암 쪽은 90년대와 2000년대 히트곡, 특히 록 발라드와 댄스가 살아 있다. 구월동 로데오 쪽 룸형 가라오케는 스테이지가 있는 곳도 있어 듀엣과 합창 연출이 수월하다.

기계는 TJ와 금영 두 가지가 주류다. TJ는 최신곡 업데이트가 빠르고 원키가 대체로 가벼운 편, 금영은 구곡 데이터베이스가 풍부하고 보컬 이펙트가 다채롭다. 같은 곡이라도 반주 스타일과 키 감이 다를 수 있으니, 큐시트를 만들 때 기계에 따라 키 조정 범위를 미리 적어두면 실전에서 허둥대지 않는다.

인원수와 시간도 중요한 변수다. 다섯 명이 60분을 쓰는 자리와 열두 명이 120분을 쓰는 자리는 전혀 다른 게임이다. 한 곡당 3분 30초를 잡고, 간주와 셋업을 고려해 4분으로 계산하면 대략적인 수용량이 보인다. 예를 들어 60분이라면 12~14곡이 적정, 120분이면 24~28곡 수준이다. 거기에 듀엣과 합창을 섞으면 참여도가 달라진다.

준비는 밖에서, 무대는 안에서

큐시트는 방에 들어가기 전에 대부분 끝내야 한다. 기본 정보가 확정될수록 현장 운용이 쉬워진다. 특히 인천 가라오케는 회전율이 좋아서 자리를 비워주는 시간까지 계산해야 한다. 많이 가는 지점은 주말 저녁 대기 시간이 20~40분까지 늘기도 한다. 예약이 가능하다면 확실히 해두고, 불가하다면 B플랜 장소를 정해두는 편이 안전하다.

아래 간단한 체크리스트는 매번 현장에서 확인하는 항목들이다. 이 다섯 가지만 손에 쥐면 70퍼센트는 정리된다.



- 인원과 시간: 총 몇 명, 몇 분 사용 예정인지. 늦게 합류할 사람의 도착 예상 시간을 적는다.
- 연령대와 취향: 20대 위주인지, 30대 섞임인지, 장르 금기 사항(금지곡, 장례식 직후 등)이 있는지 확인한다.

- 기계와 방 형태: TJ/금영 여부, 스테이지 유무, 마이크 숫자(유선/무선), 탬버린과 심벌 유무.
- 목적: 회식, 생일, 환송, 소개팅 뒤풀이 등 목적에 따라 분위기 설계가 달라진다.
- 예산과 시간표: 기본 요금과 추가 요금 범위, 술과 안주를 시킬지, 마지막 곡 타임을 몇 분으로 잡을지.

좋은 큐시트의 뼈대: 에너지 곡선과 역할 배분

큐시트의 핵심은 에너지를 설계하는 일이다. 방에 들어가서 첫 곡부터 성대가 터질 듯 달리면 20분 만에 고갈된다. 반대로 모두가 탐색만 하다 보면 시간만 흐른다. 경험상 가장 무난한 곡선은 워밍업 - 상승 - 피크 - 완만한 하강 - 앙코르 다섯 구간이다. 구간마다 목적과 장치가 분명해야 한다.

워밍업은 박자 쉬운 중고음, 간주가 짧은 곡이 좋다. 예를 들어 10cm의 사랑은 은하수 다방에서, 장범준의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향이 느껴진거야 같은 곡은 첫 마이크에 무리가 없다. 상승 구간에서는 세대 공감에 되는 댄스나 록 발라드를 걸어 박수와 떼창을 열어준다. 버즈의 겁쟁이, YB의 나는 나비, 소녀시대의 Gee 같은 곡은 남녀가 섞여도 호응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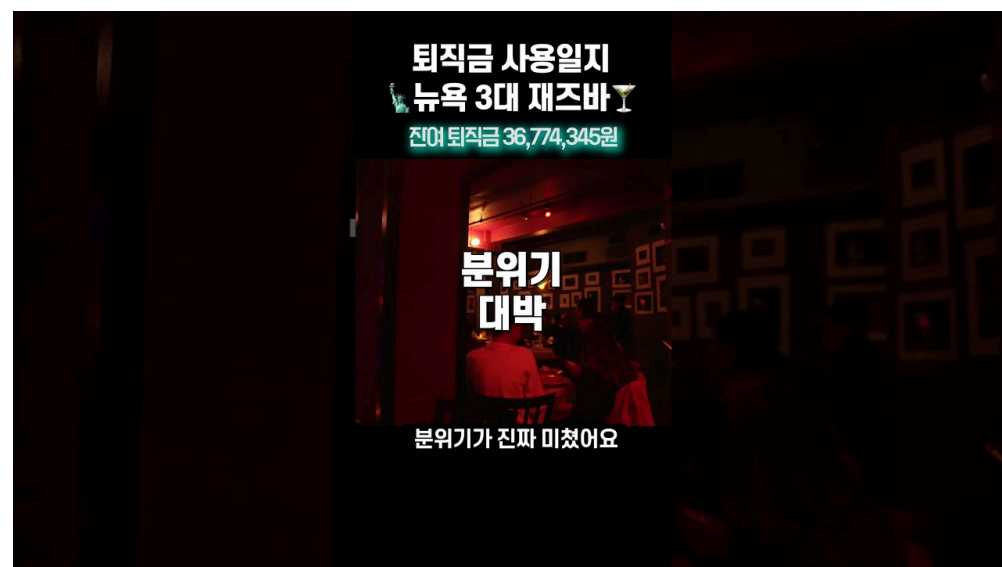
피크는 모두가 서서 리듬을 타는 타이밍, 듀엣과 합창을 집중 배치한다. 빅뱅의 거짓말, 카라의 Mister, PSY의 강남스타일처럼 공간을 쓰는 곡이 좋다. 여기에 트로트 한 곡을 배치하면, 어르신이나 선배가 있다면 장윤정의 어머니, 임영웅의 사랑은 늘 도망가가 확실하게 힘을 준다. 송도처럼 외국인 비율이 높은 곳이라면 BTS의 Dynamite나 마이클 잭슨의 Billie Jean 같은 글로벌 스탠더드를 넣으면 모두가 따라 할 수 있다.

완만한 하강은 발라드로 목을 쉬게 하는 구간이다. 김범수의 보고싶다, 다비치의 8282, 장범준의 노래방에서처럼 멜로디가 선명한 곡을 한두 개 섞는다. 앙코르는 한 방에 휘어잡는 곡으로 끝을 낸다. 잔나비의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감성 엔딩을 택할 수도 있고, 이정현의 와처럼 댄스로 웃음의 여운을 남길 수도 있다.

역할 배분 또한 중요하다. 마이크 리더는 선곡과 넘김을 책임지는 사람이고, 타이밍 키퍼는 곡 사이 10~15초의 공백을 관리한다. 소음이 많은 방에서는 소리보다 손짓이 빠르다. 듀엣 파트너를 정리해 두면 피크 구간이 매끄럽다. 신입이나 낯가림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중반 이전에 짧고 쉬운 곡으로 얼음을 먼저 깬다.

키와 템포, 리모컨과 점수 모드

실전에서 가장 자주 틀어지는 부분이 키 조정이다. 원키보다 1~2키 낮춰야 편한 곡이 많다. 남성은 버즈 겁쟁이를 -2, 빅뱅 거짓말을 -1로 두면 무난하고, 여성은 아이유 밤편지를 +1, 태연의 사계를 +1 정도에서 시작해 보고 조정한다. 금영은 반주가 풍성해 키를 낮춰도 분위기가 유지되고, TJ는 원키에서 경쾌한 타격감이 좋아 템포를 +1 올리는 연출이 먹힌다.



리모컨 단축 버튼을 익혀두면 곡 사이 공백이 줄어든다. 예약은 미리 두 곡, 많아도 세 곡까지만. 점수 모드는 초반에는 끄고, 중반 이후 경쟁이 필요하면 켜는 편이 낫다. 점수가 나오면 사람들이 이성을 잃기 쉽다. 점수 경쟁이 목적이라면 발성 좋은 사람이 먼저 치고 나가서 기준을 올려준다. 그렇지 않다면 감상과 호응을 우선한다.

큐시트 설계 5단계

- 오프너 선정: 만장일치로 쉽게 박수를 칠 노래를 첫 곡에 둔다. 중간 고음, 짧은 간주, 합창 가능한 후렴이 기준이다.
- 그룹맵 작성: 사람별 두 곡씩 희망곡을 받고, 듀엣 가능한 조합을 표시한다. 키 조정 예상치를 옆에 적어둔다.
- 에너지 곡선 배치: 워밍업부터 앙코르까지 5구간을 만들고, 그룹맵의 곡을 각 구간에 나눈다. 피크에는 듀엣과 댄스, 하강에는 발라드를 넣는다.
- 대체곡 확보: 인기곡 두세 개에는 바꿔 끼울 후보를 둔다. 방의 음향이나 기계 데이터에 따라 급히 교체할 수 있게 한다.
- 타임코드 기입: 각 곡당 4분을 기준으로 시간대별로 커트라인을 적어둔다. 5분 전에 마지막 곡, 2분 전에 앙코르 시작 같은 식으로 체크한다.

60분, 8인 기준 샘플 큐시트

방의 크기, 기계, 실제 상태에 따라 조정하되, 이 흐름은 평균적으로 안전하다. 예시는 인천 부평역 인근 TJ 기준이며, 남녀 혼성 8인, 20대 후반부터 30대 후반이 섞인 자리를 가정했다.

|타임코드| 구간 | 역할 | 곡 예시 | 비고 || --- | --- | --- | --- | --- || 00:00 | 워밍업 | 오프너 | 10cm - 사랑은 은하수 다방에서 | 전원 합창 포인트 확인 || 04:00 | 워밍업 | 신입 얼음깨기 | 세븐틴 - 아주 NICE | 후렴 떼창, 템포 +1 || 08:00 | 상승 | 마이크 리더 | 소녀시대 - Gee | 간주 짧음, 안무 손동작 유도 || 12:00 | 상승 | 남성 고음 | 버즈 - 겁쟁이 | -2키, 후반 코러스 합창 || 16:00 | 상승 | 여성 라인 | 카라 - Mister | 후렴 포인트, 무대 앞 활용 || 20:00 | 피크 | 듀엣 1 | 빅뱅 - 거짓말 | -1키, 번갈아 부르기 || 24:00 | 피크 | 트로트 앵커 | 장윤정 - 어머니 | 어르신/선배 배려, 탬버린 투입 || 28:00 | 피크 | 글로벌 | BTS - Dynamite | 영어 파트 분배, 리듬 유지 || 32:00 | 하강 | 발라드 1 | 김범수 - 보고싶다 | 정면 조명 끄고 감상 모드 || 36:00 | 하강 | 감성 POP | 잔나비 -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 전주 길어, 이야기 후 시작 || 40:00 | 재상승 | 레트로 | 롤라 - 3!4! | 전원 코러스, 간단 안무 || 44:00 | 재상승 | 힙합 댄스 | 싸이 - 강남스타일 | 댄스 타임, 마이크 회전 빨리 || 48:00 | 마무리 | 신청곡 슬롯 | 자유 | 현장 분위기 반영 || 52:00 | 앙코르 1 | 단체송 | YB - 나는 나비 | 후렴 떼창, 션피 타임 || 56:00 | 앙코르 2 | 섯다운 | 아이유 - 밤편지 | +1키, 조용히 마무리 |

시간이 촉박해지면 앙코르를 하나만 남기고 강남스타일을 컷한다. 반대로 현장이 더 달아오르면 거짓말 뒤에 블랙핑크의 휘파람 같은 3분대 후크송을 끼워넣는다.

120분, 12인 기준 샘플 큐시트

송도 국제도시 쪽 대형 룸, 금영 기준, 구성원 12인, 외국인 2인 포함을 가정한다. 듀엣과 합창 비중을 높이고, 개인 솔로는 1인 2곡까지로 제한한다.

|타임코드| 구간 | 역할 | 곡 예시 | 비고 || --- | --- | --- | --- | --- || 00:00 | 워밍업 | 오프너 | 장범준 -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 박자 쉬움, 합창 유도 || 05:00 | 워밍업 | 여성 라인 | 뉴진스 - Super Shy | 템포 +1, 후렴 핸드모션 || 10:00 | 워밍업 | 남성 라인 | 자우림 - 하하하송 | 분위기 업 || 15:00 | 상승 | 레트로 댄스 | 소녀시대 - 다시 만난 세계 | 고음 주의, 떼창 || 20:00 | 상승 | 록 발라드 | FT아일랜드 - 사랑얏이 | -1키 권장 || 25:00 | 상승 | 트로트 1 | 임영웅 - 사랑은 늘 도망가 | 전 세대 호응 || 30:00 | 상승 | 글로벌 | Maroon 5 - Sugar | 외국인 참여 || 35:00 | 피크 | 듀엣 1 | 다비치 - 8282 | 파트 분배, 합창 || 40:00 | 피크 | 듀엣 2 | 볼빨간사춘기 - 나만, 봄 | 키 조정 유연하게 || 45:00 | 피크 | 히트 | 빅뱅 - Fantastic Baby | 점프 허용, 무대 활용 || 50:00 | 피크 | 힙합 | 지코 - 아무노래 | 춤 참여 || 55:00 | 쿨다운 | 발라드 | 성시경 - 너의 모든 순간 | 조명 다운 || 60:00 | 인터미션 | 간식/물 | 대화, 사진 | 재정비 타임 || 65:00 | 재가열 | 레게톤 | 제시 - 눈누난나 | 리듬 회복 || 70:00 | 재가열 | 걸그룹 | 에스파 - Drama | 포인트 안무 || 75:00 | 재가열 | 보이그룹 | 세븐틴 - 손오공 | 합창 위주 || 80:00 | 피크2 | 트로트 2 | 홍진영 - 사랑의 배터리 | 탬버린 필수 || 85:00 | 피크2 | 글로벌 | Queen - We Will Rock You | 스톱프, 박수 || 90:00 | 피크2 | 합창 명곡 | SG워너비 - 라라라 | 화음 놀이 || 95:00 | 하강 | 감성 록 | 넬 - 기억을 걷는 시간 | 분위기 전환 || 100:00 | 하강 | OST | 거미 - You Are My Everything | 드라마 팬 배려 || 105:00 | 프리슬롯 | 신청곡 | 자유 | 새로 합류자 소화 || 110:00 | 앙코르 1 | 빅 앤섬 | YB - 나는 나비 | 단체 사진 || 115:00 | 앙코르 2 | 라스트 댄스 | 이정현 - 와 | 에너지 방전 |

이 구성의 포인트는 60분 즈음에 명확한 인터미션을 넣는 것이다. 물 한 잔으로 컨디션을 챙기면 후반 피치가 급락하는 걸 막는다. 외국인 친구가 있다면 Queen과 Maroon 5 사이에 BTS의 Butter를 끼워 확장한다.

혼합 연령대, 취향이 갈릴 때의 선택

회식 자리는 20대 신입과 50대 임원이 공존한다. 이런 판에서는 선곡의 명분이 필요하다. 한쪽만 즐거우면 나머지는 스마트폰만 보게 된다. 워밍업은 중립적인 곡으로 시작해 모두가 쉽게 박자를 타게 만든다. 중반에 90년대 메들리를 한 번 묶어주면 공통의 추억이 생긴다. 롤라의 3!4!, 쿨의 슬퍼지려 하기 전에, 이정현의 바뀌를 12~15분 안에 편성하면, 연령과 상관없이 몸이 먼저 반응한다.

트로트는 한 번만이 아니라 두 번 배치한다. 전반부 상승 구간에 한 번, 후반부 피크로 가는 길목에 한 번. 같은 장르라도 결이 다르다. 장윤정의 어머니는 경쾌한 박수로 사람을 앞으로 끌어내는 역할이고, 나훈아의 테스형은 합창과 구호로 목소리를 모아주는 힘이 있다. 분위기가 지나치게 끓어오르면, 성시경이나 박효신 같은 정공법 발라드로 온도를 낮춘 뒤 다시 댄스로 올리면 리듬이 살아난다.

현장에서 바꾸는 법: 흐름 읽기와 장치

큐시트는 지침이지 족쇄가 아니다. 방음이 허술해 박자가 흐트러지면 간주가 짧은 곡으로 갈아타고, 스피커가 저음을 둔하게 내면 힙합과 EDM은 과감히 줄인다. 금영에서 반주가 과하게 화려하면 목소리가 묻힐 수 있으니, 마이크 에코를 1~2단계 줄이고 키를 1 내리는 게 도움된다.

곡 사이의 공백은 10초 이내가 좋다. 한 곡이 끝날 때 다음 곡을 바로 스타트하고, 첫 소절이 나오기 전 간주 동안 마이크가 넘어가야 한다. 선곡 논쟁은 바깥에서 하거나, 아예 큐시트에 신청곡 슬롯을 2~3개 확보한다. 신청곡 슬롯은 매번 4분을 잡고, 연속으로 붙이지 않는다. 신청곡 두 개가 연속해서 흐르면 에너지 곡선이 깨질 때가 많다.

점수 모드는 상황에 따라 켜고 끈다. 사람들 사이에 장난 감정이 쌓였을 때 90점 미만 벌칙 같은 룰을 걸면 웃음이 터진다. 하지만 점수 집착형 참가자가 있으면 후반부에만 잠깐 켜고, 앙코르에는 끈다. 감상형 발라드는 점수보다 호흡과 무대 매너가 더 큰 박수를 받는다.

곡 보관함: 카테고리별 안전한 선택지

모든 자리에 만능 선곡은 없다. 그래도 반응이 검증된 카테고리가 있다. 최신 K-pop은 뉴진스의 Super Shy, 에스파의 Drama, 세븐틴의 손오공 같이 후렴 구조가 단순한 곡이 안전하다. 고음이 부담스러우면 템포만으로 분위기를 올릴 수 있다. 2000년대 댄스는 소녀시대의 Gee, 카라의 Mister, 원더걸스의 Nobody가 여전히 강력하다. 안무 포인트가 있어 합류가 쉽고, 노래 실력 부담이 낮다.

록 발라드는 버즈의 겁쟁이, FT아일랜드의 사랑앓이, 박완규의 천년의 사랑이 철옹성이다. 키를 1~2 내려 시작하고, 후렴에서 합창을 유도하면 과한 성대 사용 없이 각이 산다. 감성 발라드는 김범수의 보고싶다, 성시경의 너의 모든 순간,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이 무난하다. 발성 좋은 사람이 많지 않다면 템포를 약간 올리거나 코러스를 적극 활용한다.

트로트는 장윤정의 어머니, 설운도의 사랑의 트위스트, 임영웅의 이제 나만 믿어요가 반응이 빠르다. 후렴이 한 눈에 들어오고 박수 리듬이 맞기 때문이다. 글로벌 히트곡은 BTS의 Dynamite와 Butter, 퀸의 We Will Rock You, 브루노 마스의 Uptown Funk가 비교적 쉬운 편이다. 영어 발음에 자신이 없으면 코러스를 맡고 후렴 구호를 크게 외치는 방식으로 참여도를 올린다.

마이크 운용, 위생, 그리고 작은 디테일

마이크 두 대면 대부분 충분하다. 세 대 이상이면 누수가 생긴다. 두 대일 때는 듀엣에서 1대씩, 솔로일 때는 한 대로 진행하면서 다른 한 대는 다음 가수에게 미리 넘긴다. 유선 마이크는 케이블이 꼬이지 않게, 마이크 헤드를 천으로 한 번 닦고 전달하는 제스처가 위생과 매너를 모두 충족한다. 탬버린은 리듬 감 있는 사람이 맡고, 박수가 엇나가는 사람에게는 간단한 구호를 맡기는 편이 더 깔끔하다.

음료와 안주는 전반 20분 안에 주문을 끝낸다. 가장 시끄러운 피크 구간에 주문이 겹치면 흐름이 깨진다. 물은 마이크 옆이 아니라, 기계 반대편에 둔다. 물병과 리모컨이 같은 테이블에 있으면 버튼이 눌리거나 물이 쏟여 작은 사고가 난다. 사진과 영상은 피크 직후나 앙코르 시작 전이 좋다. 땀이 나기 시작한 직후가 웃음과 표정이 가장 살아난다.

변수 대처: 늦은 합류, 소심한 참가자, 장비 이슈

늦게 합류하는 사람이 있으면 프리슬롯을 40분 이후에 두 개, 80분 이후에 한 개 정도 빈칸으로 남겨둔다. 새로운 사람이 오면 인사 후 바로 신청곡을 소화하고 흐름에 다시 합류시킨다. 소심한 참가자는 짧은 듀엣으로 데뷔시키는 것이 안전하다. 예를 들어 어머니의 2절 후렴이나 Nobody의 마지막 후렴을 맡기면 부담이 적다.

장비 이슈는 자주 생긴다. 무선 마이크가 지직거리면 배터리를 먼저 의심하고, 교체가 불가하면 유선으로 전환한다. 리모컨이 둔하면 곡 검색을 스마트폰에서 먼저 확인하고 번호만 공장 입력한다. 간혹 반주 볼륨이 지나치게 크면, 마이크 볼륨을 올리기보다 반주를 2~3 단계 낮추는 편이 피드백이 덜하다. 금영에서 코러스가 과하면 이펙트 값을 1 내려준다.

인천에서의 예약, 요금, 동선 팁

인천 가라오케 요금은 지역과 시간대에 따라 차이가 크다. 주말 저녁 부평역, 주안역, 구월동 중심가에서는 1시간 기준 평일보다 10~30퍼센트 비싸게 받는 곳이 많다. 코인 노래방은 1곡당 가격이 정해져 있어 예산 관리가 쉽지만, 단체라면 룸형이 회전과 동선 모두 유리하다. 핫한 시간대는 오후 9시부터 자정 사이로, 대기 줄을 고려해 10분 일찍 도착하는 것이 좋다.

대중교통 막차는 노선마다 다르니, 정확한 시간표는 당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경험상 밤 12시 30분에서 1시 사이를 심리적 데드라인으로 잡고, 20분 전 앙코르를 시작하면 막차 스트레스가 줄어든다. 차량 이동이라면 주차장 출차 대기 시간을 고려해 예약 종료 10분 전 결제를 마친다.

인천 가라오케에서 통하는 분위기 연출

장소가 바뀌면 분위기가 달라진다. 인천항 근처 포구에서 회를 먹고 들어오는 자리는 바람과 냄새가 아직 남아 있다. 시원한 바다 이미지를 자극하는 곡, 볼빨간사춘기의 여행이나 디오의 괜찮아도 괜찮아 같은 산뜻한 곡으로 첫 문을 열면 걸걸한 목상태가 풀린다. 송도는 외국인과 가족 단위가 섞이니 과한 가사가 들어간 곡은 피하고, 박자 위주의 후크로 접근한다. 부평과 주안은 코어 팬층이 많아 2000년대 히트곡 재현이 먹히고, 반대로 너무 최신곡만 몰아치면 호응이 뚝 끊긴다. 결국 인천 가라오케의 핵심은 혼합과 균형이다. 한쪽으로 쏠리면 다른 쪽이 잃는 것을 빨리 감지해 되돌리는 기술이 필요하다.

데이터화의 미덕: 끝나고 바로 적어두기

같은 멤버로 또 만날 확률이 높다면, 끝난 직후 3분만 투자해 기록을 남긴다. 어떤 곡에서 떼창이 터졌는지, 누구의 키가 어느 정도였는지, 어느 지점에서 에너지가 꺼졌는지를 간단히 적으면 다음 번 큐시트의 품질이 두 배가 된다. 예를 들어 A는 겁쟁이를 -2에서 편하게 올렸고, B는 Gee에서 고음이 힘들어했다, C는 트로트에 반응이 좋았다는 정도면 충분하다. 기계별 선호도도 함께 남겨두자. 어떤 방은 금영의 마이크 이펙트가 과하고, 어떤 방은 TJ에서 저음이 비어 있다. 이런 데이터는 다음 예약과 선곡의 기준점이 된다.

마지막 한 곡을 고르는 기준

마지막 곡은 기억을 맞추는 도장이다. 모임의 목적을 다시 떠올려 보자. 환송이라면 봄날 같은 담담한 곡이 어울리고, 생일이라면 축하해줄 합창 가능한 [구월동 가라오케](#) 후크가 필요하다. 파티였다면 모두가 몸을 일으키는 곡이 맞다. 나는 대체로 두 가지를 준비한다. 조용한 엔딩용 발라드와, 웃음으로 끝내는 댄스곡. 방의 표정이 가리키는 쪽으로 한 곡만 택한다. 중요한 건, 다음에 또 만나고 싶게 만드는 마침표다. 노래가 끝난 뒤 10초의 조용한 박수, 한마디의 감탄, 그리고 빠르게 정리하는 동선까지 큐시트의 일부라고 생각하면 매번 결과가 좋아진다.

잘 짜인 큐시트는 고정된 답안이 아니라, 현장을 읽어내는 감각을 돕는 지도에 가깝다. 인천 가라오케의 수많은 방처럼, 사람들도 각자 다른 공명을 갖고 있다. 그 차이를 환대로 묶어내면 어떤 밤이든 빛난다. 준비는 바깥에서, 축제는 안에서. 다음 파티의 첫 줄에 무엇을 쓸지, 이제 손이 근질거릴 것이다.